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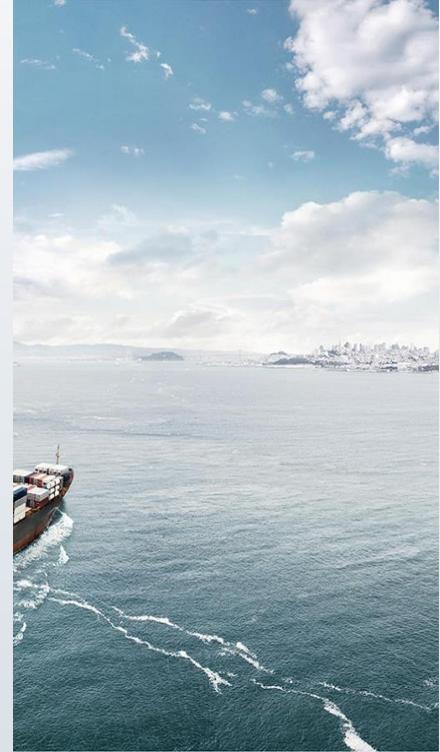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32

Updated January 15,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英 브렉시트 연착륙할까...해운물류시장도 혼란 가중

오는 3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세계 해운물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국이 EU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영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9일 개최한 '브렉시트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이 한-EU FTA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영국의 독자적 품목분류를 따르고, 최혜국(MFN) 실행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이 생기면서 상품수출입 시 통관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하원은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합의문이 가결되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에서 탈퇴하는 대신 내년 말까지 무역관계에 대한 전환기간을 가지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현행 EU의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전격적인 통상정책 파기를 유예하게 돼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영국 의회는 합의문대로 일정 분담금을 내고 유럽단일시장의 지위를 인정받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EU와 체결한 합의문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이별하자는 '하드(노딜) 브렉시트'파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합의문이 부결되면 제2의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3월 말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영국의 자체 통상법을 따라야 한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는 "보수당 일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이 반대가 커서 현재로서는 (합의문)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EU 탈퇴시 특혜원산지·수출입규제 문제 부상

곽 연구원은 영국 하원의 합의문 반대로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지면 국내 무역업체들이 특혜원산지나 수출입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로 특혜원산지 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 영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관세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산 부품원자재가 한-EU FTA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곽 연구원은 "(기업들이) 제품의 공급망을 확인하고, 영국산 부품원자재를 제외하고도 역내산 인정이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며 "EU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수출입 통관문제도 EU 의 수출입규정을 따랐지만 앞으로는 영국이 비회원국이 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서 발급받은 수출입면허는 EU 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광 연구원은 “(기업들이) EU 수출입규제 규정과 수출입면허의 적용 대상인지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EU 와의 FTA 로 누리던 기존 인증·승인·면허 등을 미리 영국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획득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유덕 교수는 향후 영국과의 온전한 무역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가 FTA 를 조기에 맺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타결되면 영국이 EU 시장에 잔류하는 동안 한·영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기존 한·영 무역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국 정부와 (FTA 추진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英의 EU 탈퇴 우려로 해상운임 인상 가능성 ↑

브렉시트는 해운물류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유럽항로의 해상운임이 브렉시트 여파로 크게 올랐다.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영국의 소매업자들이 브렉시트 이전인 3 월 29 일 전까지 재고를 채우려 하다 보니 아시아-유럽 노선의 해상운임이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1 월 4 일 중국 상하이-북유럽 노선의 해상운임은 TEU 당 996 달러를 기록했다.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수요와 중국 설(춘절) 연휴에 따른 물량 밀어내기 수요가 겹치면 1,000 달러 고지를 돌파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 노선의 평균 운임은 700~900 달러로, 4 월 한때 580 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외신은 “북유럽항로 운임이 지난해 대비 13% 올랐고, 지중해항로보다 훨씬 강세를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항만과 공항은 일시적인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영국은 EU 와의 단일시장에 묶이면서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물류허브로 성장했다. 영국 최대 컨테이너 허브항만인 사우샘프턴항은 역대 최대 물동량 경신을 앞두고 있다. 히드로공항은 지난 2017 년 항공화물 물동량이 10.2% 증가한 170 만 t 을 기록하며, 주요 유럽지역 경쟁공항인 프랑크푸르트 샤를드골 암스테르담 등을 꺾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영국 트럭운전수들의 운송면허증이 EU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유럽내륙운송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I . ISSUE & TREND

하지만 브렉시트가 영국의 해운물류시장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팽팽히 맞선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도 미국 캐나다 남미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간 FTA 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이 EU 에서 탈퇴하면 교역을 늘리고 싶은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어, 오히려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탈규제를 주장하는 영국 보수당 강경파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내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로이즈리스트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매상 등 수입업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2019년에는 저유가가 어려움을 상쇄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좀 더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2. 한진중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인가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자회사 수빅조선소가 필리핀 현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인가받았다.

15일 한진중공업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산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은 지난 14일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8일 수빅조선소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6일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필리핀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법원은 조만간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회사 측은 채무조정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을 이를 심사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빅조선소는 파산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회생계획 인가까지 또 다른 고비를 앞두고 있지만, 일단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만으로도 수빅조선소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현지 은행과의 채무재조정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수빅조선소의 매각 가능성도 법원 판단의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필리핀 정부 역시 지원해 왔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중국 국유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이 거론되며,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조만간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I . ISSUE & TREND

3. 조선 3 사, 스마트선박 수주 주도권 잡기 위해 기술 확보에 분주

4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조선과 해운업계에도 '스마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 사 역시 스마트선박 기술을 확보하는 데 분주하다. 지난 14 일 조선해운업계 현황을 보면 해상 물류 시스템과 선박 등을 자동화, 지능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스마트 해상 물류체계 구축전략'을 내놓고 올해부터 항만 스마트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항만 및 선박 사이의 E-내비게이션(E-NAVIGATION)과 자율운항 시스템, 물류 정보 연계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의 스마트화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 선사 등이 자율운항 선박을 발주하면 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사업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이자율 및 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선박 운항 관리체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9 년 말부터 E-내비게이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내비게이션은 선박과 육상에서 해상 관련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분석하는 통합 전자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럽 선진국과 중국, 일본 등은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 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 정책으로 스마트화 대열에 합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한영석 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등 조선 3 사 대표들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나란히 스마트선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립 사장은 "스마트선박 개발 등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제품군을 하루 빨리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조선사들로서는 스마트선박 기술에서 격차를 벌릴 수록 중국 조선사 등을 상대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의 친환경화에도 스마트선박이 필수적 대응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스마트선박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연료 사용량과 유해물질 배출량 등을 디지털화하고 운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 ISSUE & TREND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 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한 스마트선박 기술을 미국 선급협회(ABS)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 받기도 했다. 현재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50 여 척에 적용이 확정됐으며 향후 수백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기술은 삼성중공업의 스마트선박 솔루션인 '인텔리만 십(INTELLIMAN SHIP)'에 적용됐으며 출발 및 도착 항구의 위치 정보와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운항 상태에 따른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살필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운항 리포트를 만든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도 최근 선박용 위성안테나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위성통신업체인 인말셋 등과 '인티그릭(INTEGRICT) 스마트십 솔루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 솔루션은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 상태와 속도, 에너지 사용량 등 내부 정보와 날씨, 거리 등 외부 환경정보를 수집해 위성통신으로 육상과 주고받으며 최적화된 효율의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육상과 다른 해양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십 솔루션을 업계 리더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선박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부터 스마트선박 개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사이버 보안 기술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선박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급업체인 씨넷(SEANET)과 손잡고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해 영국 선급협회 로이드로부터 기본 승인단계 인증을 따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대우조선해양·서울대 시흥 R&D 센터'를 열어 스마트선박 개발을 중점적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모든 선박에는 운항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사실상 사이버 공격 등에 취약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의 송수신 점검, 인공위성을 통한 실시간 백신 업데이트 등이 가능해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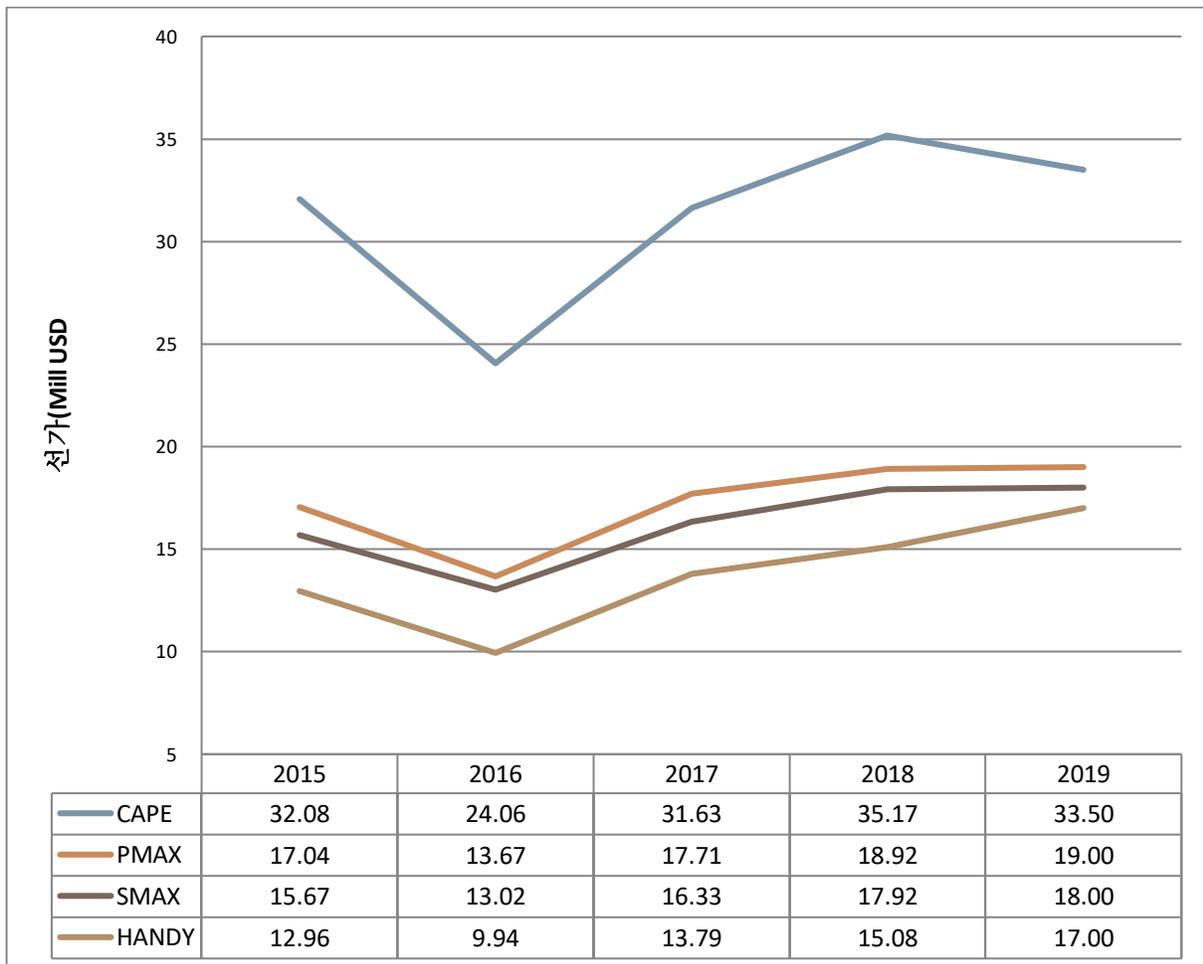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3.50
	-31.45%	-24.99%	31.43%	11.20%	-4.75%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8.00
	-36.04%	-16.91%	25.44%	9.69%	0.45%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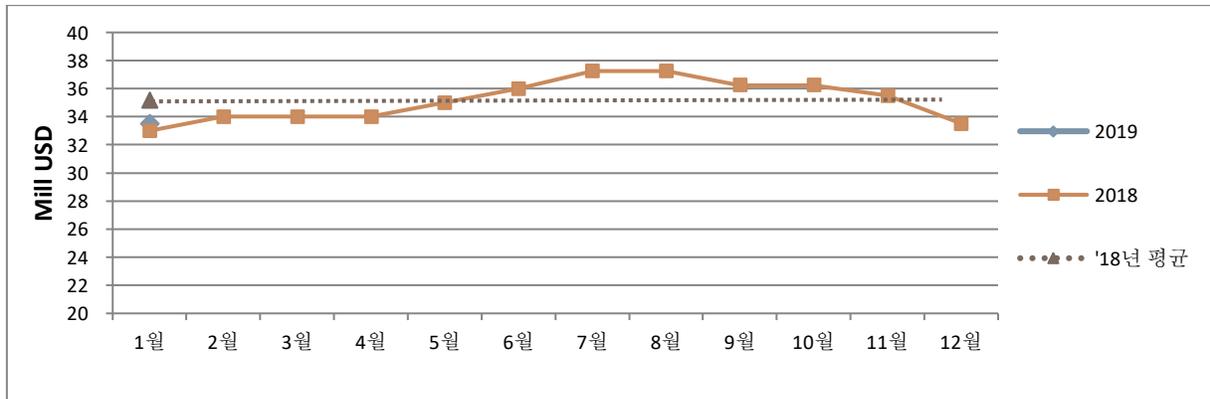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3.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5%						-4.7%
	PMAx 76k	선가	19.00						19.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2.7%						0.4%
	SMAx 58k	선가	18.00						18.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2.9%						0.5%
	HANDY 37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13.3%						-
		전년대비	21.4%						12.7%
2018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4.3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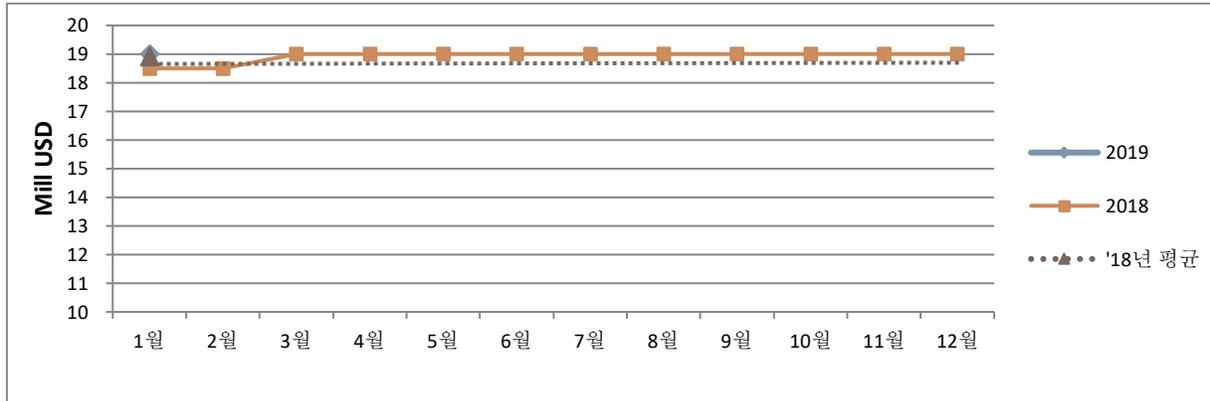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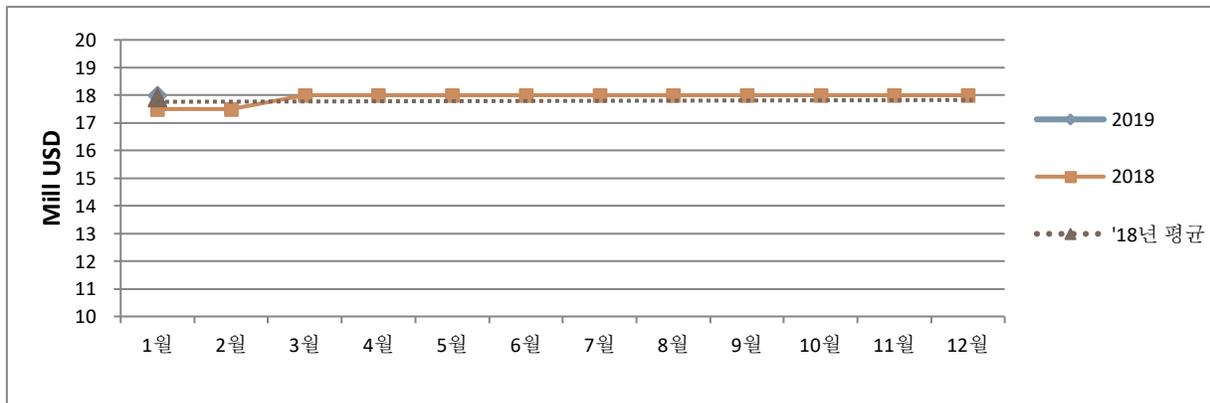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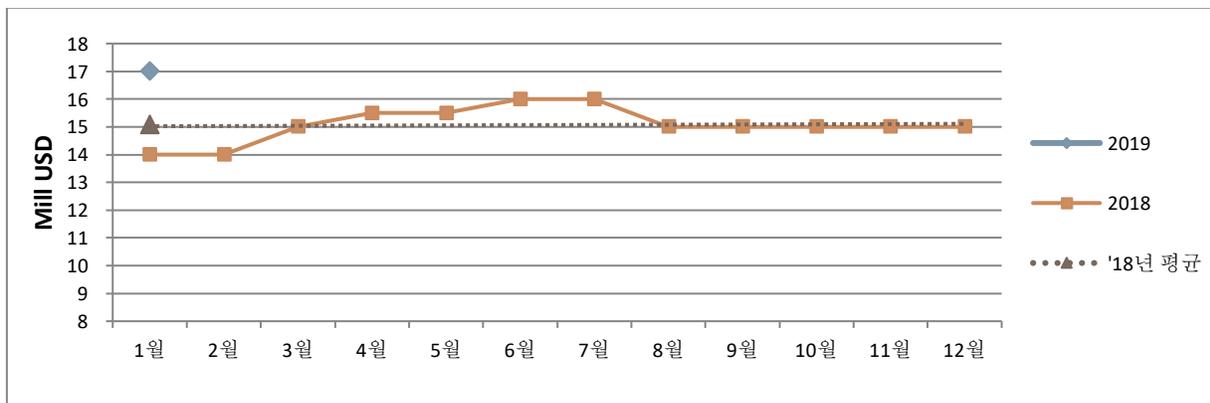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PADMINI	75,700	2012	CHINA	B&W		12.5	Greek buyer
BC	CIELO DI HOUSTON	74,100	2019	KOREA			38.6	Japanese buyer
BC	KAVALA SEAS	56,830	2011	CHINA	B&W	C 4x30t	12-12.5	Chinese buyer
BC	PAROS SEAS	56,780	2011	CHINA	B&W	C 4x30t	12-12.5	
GC	RIROIL 1	6,620	2003	RUSSIA	MAK	x	2	Auction sale, Turkish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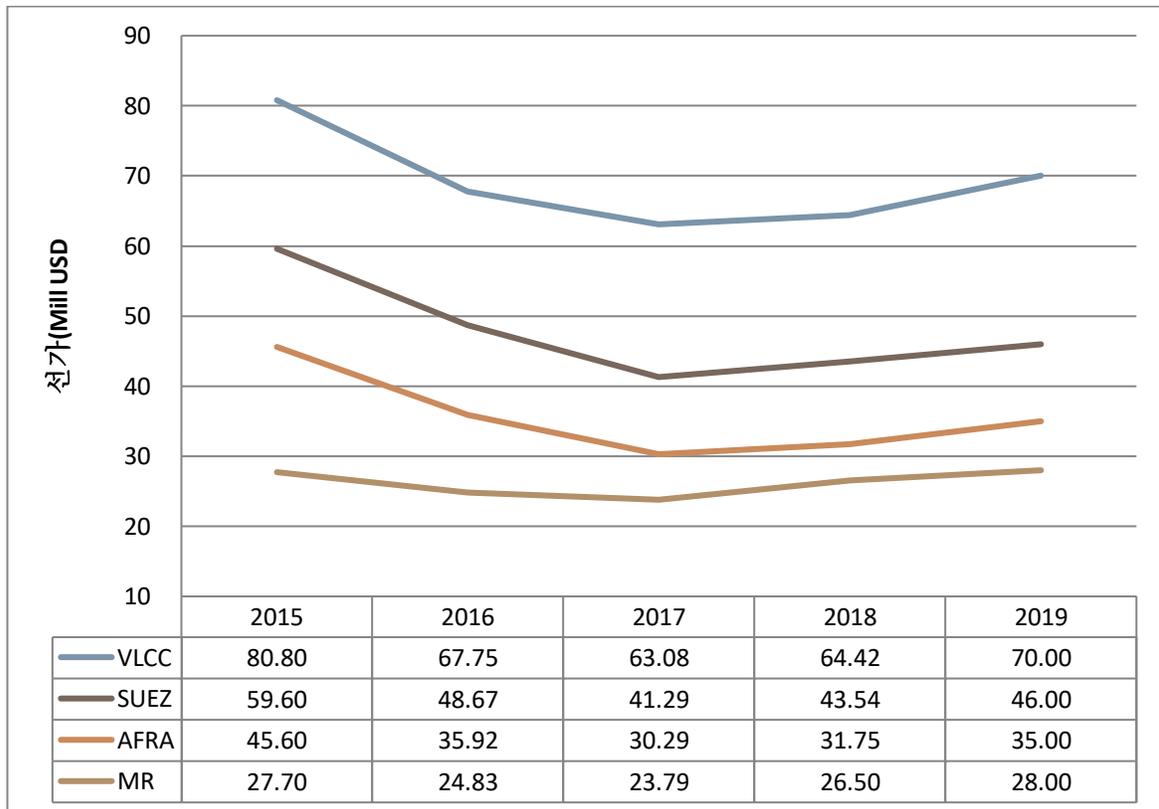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0.00
	9.04%	-16.15%	-6.89%	2.11%	8.66%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6.00
	17.32%	-18.34%	-15.15%	5.45%	5.65%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0
	-3.08%	10.45%	-10.78%	-5.20%	-6.54%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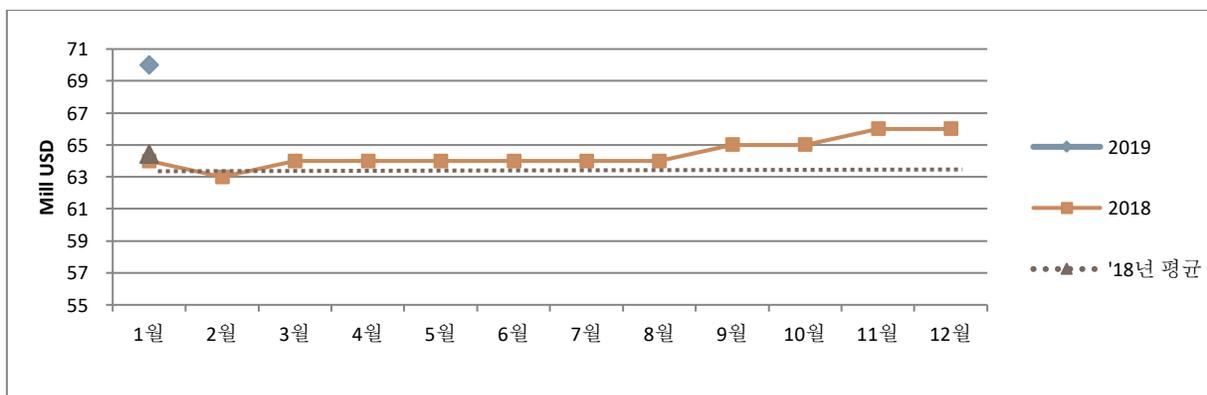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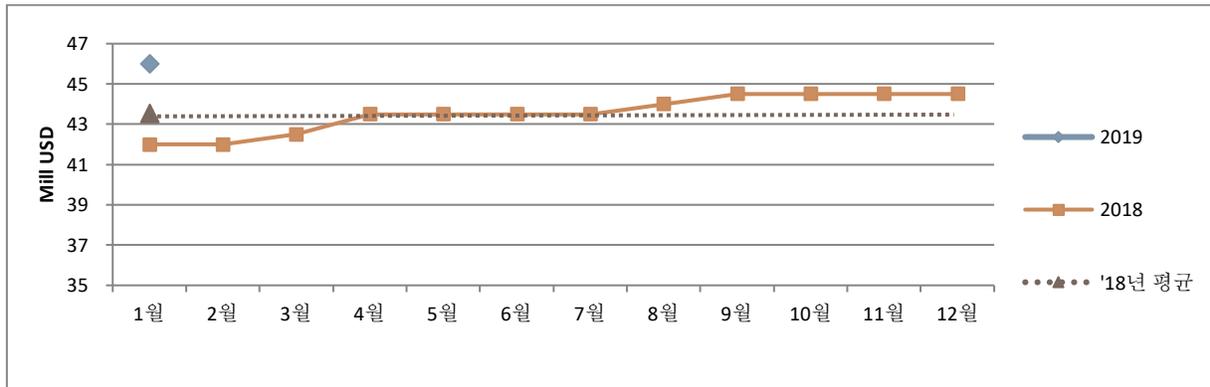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70.00
		전월대비	6.1%					-
		전년대비	9.4%					8.7%
	SUEZ 160K	선가	46.00					46.00
		전월대비	3.4%					-
		전년대비	9.5%					5.6%
	AFRA 105K	선가	35.00					35.00
		전월대비	6.1%					-
		전년대비	9.4%					10.2%
	MR 51K	선가	28.00					28.00
		전월대비	1.8%					-
		전년대비	12.0%					5.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5.4%					-6.5%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3.83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2.83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50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04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2.25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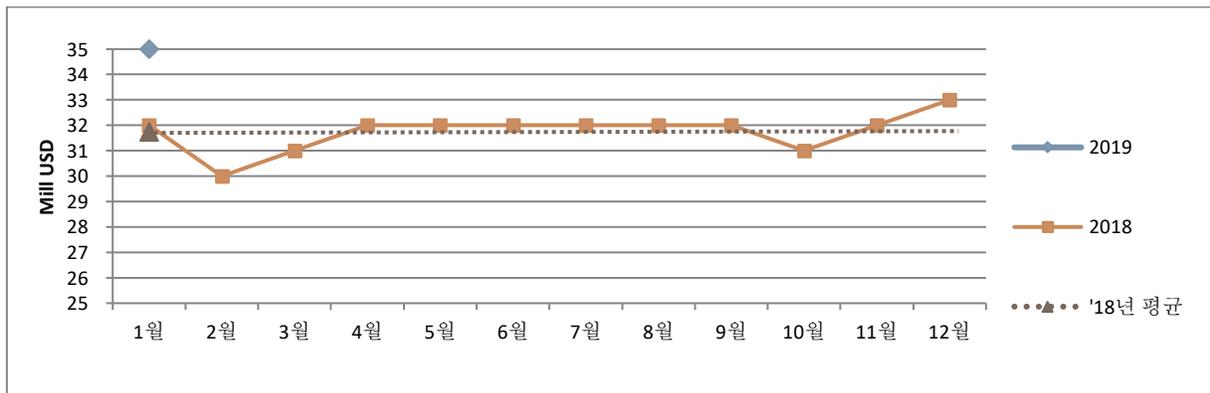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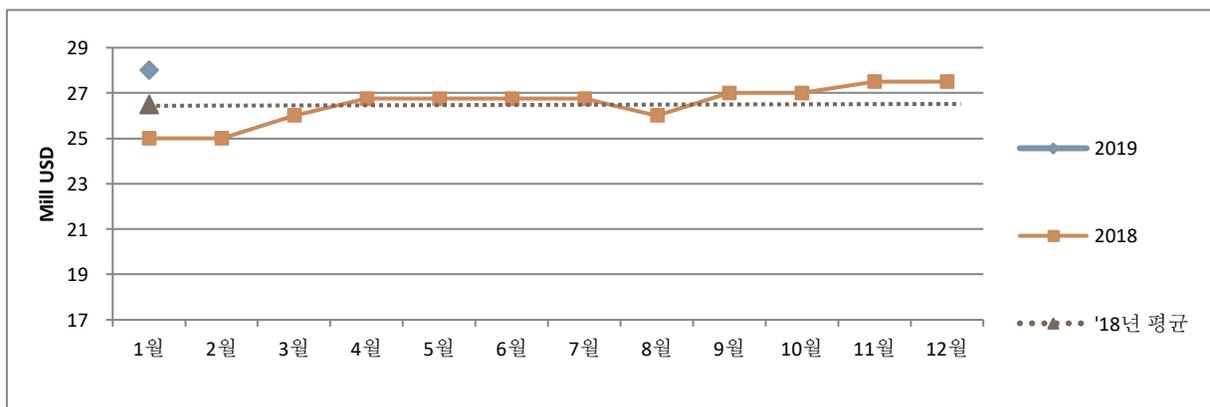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PACIFIC GLORY	299,999	2001	JAPAN	B&W		22	Chinese buyer (Kunlun Holdings)
TANKER	NORDIC SPIRIT	151,294	2001	KOREA	B&W		10.5-11	Undisclosed buyer
TANKER	BLUE RIVER	106,638	2002	JAPAN	B&W		11.5	Greek buyer (Stalwart)
TANKER	HIGH GLOW	46,846	2006	JAPAN	B&W		11.5	Singapore buyer (Jaldhi Overseas)
TANKER	MARINE EXPRESS	45,989	2009	JAPAN	B&W		16.25	Undisclosed buyer
OIL /CHEM	GREEN HELLAS	50,886	2014	KOREA	B&W	2	26	Chinese buyer
OIL /CHEM	NJORD CLOUD	16,882	2004	ITALY	WART	2&3	7	Greek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SCL BOHAI SEA	119,900	2014	CHINA	B&W	10036	TEU	66.7	Japanese buyer (Financial Products Group)
CONT	CSCL SUMMER	119,924	2014	CHINA	B&W	10036	TEU	66.7	
CONT	CSCL WINTER	119,915	2014	CHINA	B&W	10036	TEU	66.7	
CONT	CSCL SPRING	119,924	2014	CHINA	B&W	10036	TEU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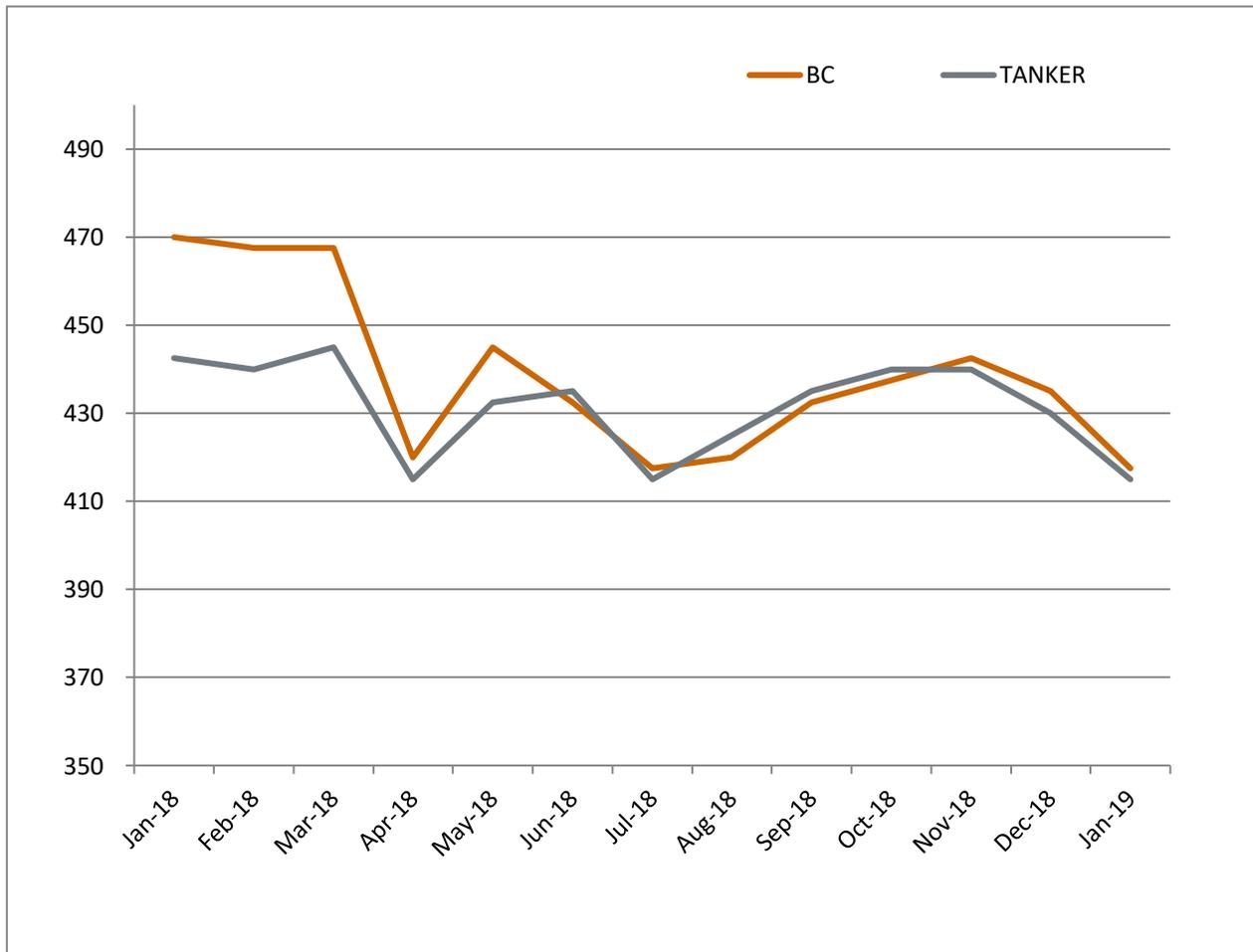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 월	2019 년 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15.00	-4.1%	442.50	415.00	-3.5%	-6.2%
BC	370.83	38.5%	440.63	18.8%	417.50	-5.2%	470.00	417.50	-4.0%	-11.2%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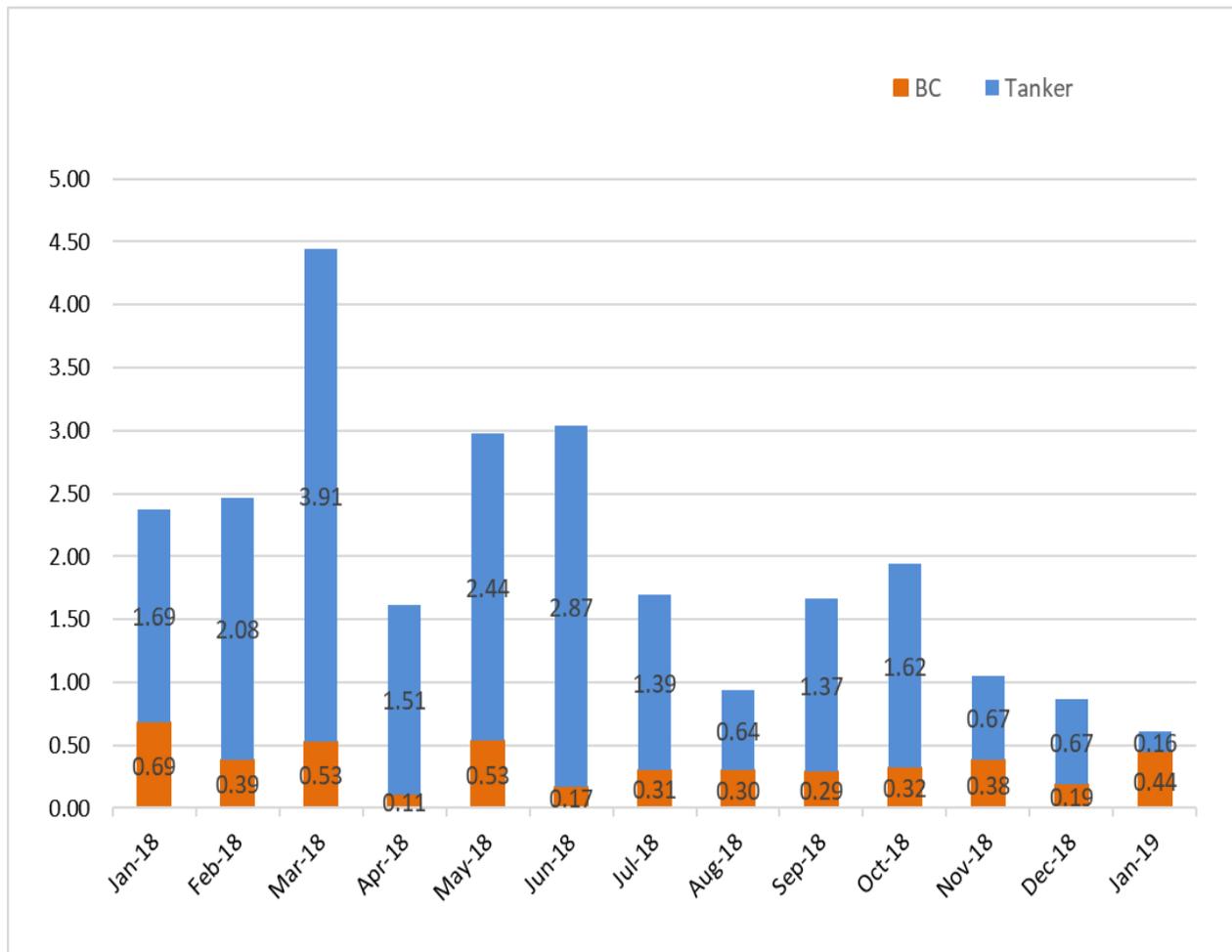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1 월		2019 년 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0.16	0.8%	4	2.1%	1.69	23	0.16	-90.3%	4	-82.6%
BC	4.20	112	0.44	10.5%	4	3.6%	0.69	11	0.44	-35.3%	4	-63.6%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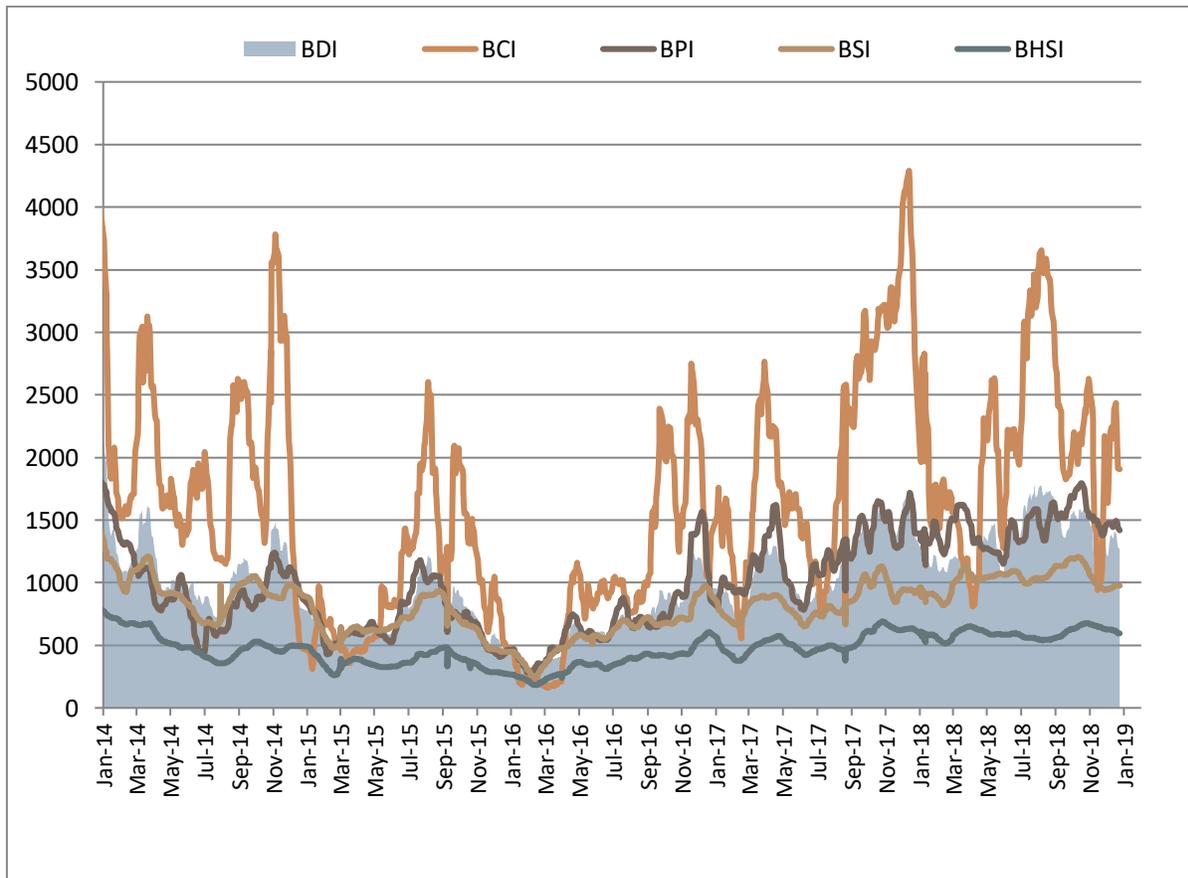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KOTA HARMUNI	17,626	5313	1997	JAPAN	B&W	458	BANGLADESH
CONT	SERVAL	13,700	5825	1995	POLAND	MAN	450	INDIA
REEFER	STAR 98	7,690	4022	1986	JAPAN	B&W	408	BANGLADESH
BC	MAMITSA XL	150,393	20536	1995	JAPAN	B&W	420	AS IS Singapore
PCC	JASA BAKTI	12,308	13557	1992	POLAND	MAN	436	INDIA
RORO	PERSEY	9,989	4055	1983	GERMANY	MAK	440	BANGLADESH
TANKER	TSEZAR	3,324	1863	1980	SWEDEN	ETC	445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1-11	2019-01-04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69	1260	▼-91.00	1774	290
BCI	1966	2003	▼-37.00	4293	161
BPI	1137	1331	▼-194.00	1796	282
BSI	842	946	▼-104.00	1209	243
BHSI	524	571	▼-47.00	724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70.00	▲34.00	325.50	▲33.50	345.50	▲31.50
IFO180	393.50	▲53.00	366.50	▲29.00	412.00	▲24.00
MGO	519.50	▲49.50	472.50	▲44.00	564.00	▲19.50
LSMGO	529.00	▲47.00	499.50	▲42.50	-	-

❖기준일 : 1 월 1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1-11	2019-01-04	CHANGE
미국 달러	1118.90	1127.50	▼-8.60
일본 엔(100)	1031.96	1046.36	▼-14.40
유로	1286.90	1284.62	▲2.28
중국 위안	164.60	163.74	▲0.8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여행정보 by STL G Tour] - 2019 년 '혜자로운' 변화

2019 년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잊지 않고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는데요. 바로 '휴가'와 '여행'에 대한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연차와 연휴 등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의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여행 관련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행자들이 2019 년을 미치게 기다리는 혜자로운 변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입국장 면세점 제도

새해에는 출국할 때만 할 수 있던 면세점 쇼핑을 입국할 때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해외여행 중에 면세품을 휴대하여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공항까지 직접 캐리어를 끌고 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내년 6 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의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1 인당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600 달러로 유지됩니다.

VI. STL NEWS & INFORMATION

단, 입국장의 혼잡을 피하고자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는데요. 대신 입국장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이 운영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 국내 항공사 기내 와이파이 사용

인터넷이 닿지 않는 마지막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던 기내에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하는 외국 항공사가 늘게 되면서 내년에는 국내 항공업계로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해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 A350-900 대를 도입하면서 기내 와이파이를 선보였죠. 대한항공 역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운행 중인 기종에 장비를 추가하거나 전용설비를 갖춘 신형 기종을 들여오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기내 와이파이의는 아직 국내에선 친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중동의 에미레이트항공은 거의 모든 항공기에, 델타항공과 아메리칸에어 등 미국 항공사들은 전체 비행기의 약 80%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핀에어도 최근 유럽 내 노선에 무료 인터넷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 모든 항공기에 도입하기로 했죠. 항공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새해에는 기내에서도 SNS 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네요.

3.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지금까지는 무거운 캐리어를 공항까지 직접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도입돼 여행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항공과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되죠. 시범운영을 거친 후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두 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은 듯 합니다.

VI. STL NEWS & INFORMATION

4. 간편해진 보안검색

출국 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가방에 있던 노트북과 액체류를 일일이 꺼내야 하는 등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새해부터 스마트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굳이 노트북과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보안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항공보안도 더욱 강화되죠.

제주공항에서는 2 월부터 CT X-ray,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10 월부터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운영 중인 생체인식시스템을 탑승구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맥과 지문을 활용한 생체정보로 탑승권과 신원을 확인하고, CT X-ray 등의 첨단 장비로 굳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보안검색이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5. 항공사 별 새해이벤트 진행

각 항공업계에서도 새해를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여행 성수기를 맞아 새해맞이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가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고 있죠. 이와 함께 영화관람권, 스타벅스 음료 쿠폰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도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2019 년 새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을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ZUM 허브룸 by 스마트인컴 2019.01.09]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